

- 본문 : 열왕기상 17장 1~7절
- 제목 : “엘리야,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 그가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6.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어느 사회에든지 기독교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회의 기독교는 도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가 도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계속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계속 도약하지만, 자기만족과 타성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고원처럼 평평해지는 정체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가 고원에 머무는 정체기였습니다. 그 정체현상은 오래 가지 않아 쇠퇴로 접어들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가 쇠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쇠퇴기 이후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환멸, 반감, 저하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박멸하고 말살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소위 ‘후기독교 현상’(Post-Christianity)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교단’의 증가와 ‘기독교박멸운동’에 나서는 안티크리스천이 많다는 사실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분명히 생명과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독교가 정체되고 쇠퇴하면서 ‘후기독교’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6장 23~34절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세요.
2.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상 17:1, 참조, 약 5:17)
3. 엘리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왕상 17:1)
4.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훈련과 적용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 말씀 - 열왕기상 17:1~5

* 기도 - 열왕기상 17:1, 야고보서 5:17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엘리야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제공하시는 기적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당신은 주께서 ‘과연 주의 말씀대로!’ ‘과연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를 포기해서, ‘기도해도 별 수 없어!’ 하며 믿음이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말씀기도제목

1.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과 훈련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능력 체험의 은혜”를 주옵소서!
2. 하나님과 접촉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기도한 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코람데오의 능력, 엘리야」 강해를 통해 변화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넘어 「위기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을특새 되게 하옵소서!

